

8월 3일 뉴스 종합 정리

2009년 8월 3일

리서치센터

02) 2009-7083

hsjeong@leading.co.kr

제목	주요 내용
<p>월간상승 7년 최고...분위기 차분</p>	<p>뉴욕 증시가 강보합세로 7월 마지막 거래일을 마무리했음. 2분기 경제성장률이 예상을 웃돌면서 안도감을 줬지만 개인 소비 감소폭이 예상을 웃돈데다 급등세 지속에 따른 차익매물이 더해지면서 3대 지수 모두 등락끝에 혼조세를 기록했다.</p> <p>31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다우지수는 전날에 비해 17.15포인트(0.19%) 오른 9,171.61로 마감했고 다우지수는 7월 한달간 8.6% 상승, 2002년 10월 이후 최고 월간 상승률을 기록했다. 7월 상승률로는 1989년 이후 최고임. S&P500 지수 역시 0.73포인트(0.07%) 올라선 987.48을 기록했고 월간 상승률은 7.4%에 달했음. 7월 상승률로는 97년 이후 최대임. 반면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 지수는 5.80포인트(0.29%) 떨어진 1,978.50으로 장을 마쳤고 나스닥 역시 한달간 7.8% 올라서는 기염을 토했음.</p> <p>개장 전 발표된 미국의 2분기 경제성장률이 예상을 웃돌면서 경기회복에 대한 확신을 높였음. 상무부 발표에 따르면 미국의 2분기 국내총생산(GDP)은 연률 1% 감소했음. 이는 전분기에 비해 월등한 성적임. 1분기 미국 경제는 6.4% 역성장하며 27년래 최악의 성적을 남겼음. 블룸버그통신 전문가들은 미국의 지난 분기 경제성장률을 -1.5%로 예상했음. 반면 개인 소비가 예상을 밑돈 점은 불안 요인으로 부각되었고 미국의 2분기 개인 소비는 1.2% 감소했음. 블룸버그통신 전문가들은 '0.5% 감소'를 예상했음.</p>
<p>유가 70불 육박</p>	<p>미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개선된데 힘입어 국제유가가 배럴당 70달러에 다가섰음.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9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가격은 전날에 비해 배럴당 2.47달러(3.7%) 상승한 69.41달러로 마감했음.</p>
<p>中, WTO에 美·유럽 시장개방 촉구</p>	<p>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중국의 이번 제소는 중국 나사제품에 유럽연합(EU)이 부과한 높은 관세와 미국의 중국 가금류 수입 금지조치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것으로 중국은 이미 미국을 제소한 상태. 중국은 보호주의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자국 내 실업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음. 반면 EU와 미국은 모두 중국의 느슨한 산업 및 건강 규제에 의해 기존 제제가 정당화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중국의 최대 수출지역인 EU와 미국은 지난 해 중국으로부터 6,100억달러의 물품을 수입했음.</p>

제목	주요 내용
日 6대 대형은행 중 5곳 2분기 `흑자	미쓰비시UFJ는 지난 2분기 759억엔의 순이익을 기록, 전년대비 48%나 급증. 반면, 리소나은행은 547억엔의 이익을 냈지만 전년대비 32% 급감하며 편차를 보였음. 미즈호은행은 주가 급락에 따른 손실이 606억엔에 달하면서 홀로 44억엔 손실을 지속. MUFJ와 스미토모, 미즈호, 리소나, 스미토모신탁은행, 추오미즈이신탁 등 6개 은행의 전체 이익은 2,226억엔으로 전년대비 36% 줄었음. 한편, 일본의 18개 주요 증권사들 역시 주식시장 회복과 기업들의 자금조달에 힘입어 지난 2분기 흑자를 기록했음.
7月 무역흑자 51억불..`교역규모 위기 회복	1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7월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0.1% 감소한 327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수입은 35.8% 감소한 275억9,000만달러로, 무역수지는 51억4,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음. 지난 6월 수출 감소율이 -11%로 줄어들고 무역흑자도 70억달러를 넘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7월 들어서는 부진할 것으로 이미 예고. 지난해 6월 화물연대가 12일간 운송을 거부하는 파업을 벌이면서 수출이 곤두박질 쳤음. 조업일수까지 1.5일 많았던 올해 6월은 기저효과로 수출 감소폭이 크게 줄었음.
올 외환보유액 2,700억달러 유력..`사상 최대	기획재정부는 2일 경상수지 대규모 흑자에 이어 외환시장 안정에 따른 한은의 달러 유동성 흡수, 운용 수익 등이 늘고 있어 외환보유액이 올해 말까지 사상 최대인 2,700억달러까지 근접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음. 한국의 최대 외환보유액은 지난해 3월말의 2,642억달러였음.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지난 1월말 2,017억달러에서 6월말 2,317억달러로 300억달러 가량 늘었음.

<참고> 위 내용은 단순한 정보전달로서 뉴스를 정리한 것입니다.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